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 3~4학년 영어 교과서 파닉스 분석*

문미정¹ · 정현성^{2**}

¹서울상곡초등학교, ²한국교원대학교

An Analysis of Phonics in Third and Fourth Grade Elementary School English Textbooks Based on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of English*

Mun, Mijeong¹ · Chung, Hyunsong^{2**}

¹Seoul Sanggok Elementary School · ²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phonics in third and fourth grade English textbooks which were developed according to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of English. The analysis was carried out with 10 textbooks focusing on the structure and contents of phonics in the textbooks. In terms of the structure, the number of units for phonics vary depending on different textbooks. It is required to balance the number of units for phonics among textbooks. Teaching hours for phonics should be secured and increased. Various phonics activities should be given to the students effectively and systematically and they should be suitable for the level and interests of the students. In terms of the contents, phonics is not given in systematic order in the textbooks. The order depends on the subject of the unit, rather than follows the systematic order. In order to teach the core concept and the basic principles of phonics, it is suggested that separate units for phonics should be developed according to the systematic order.

Key words: phonics, pronunciation teaching,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of English, elementary school

I. 연구의 필요성

초등학교 영어 교육의 목표는 기초적인 영어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길러 영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데 있는데, 파닉스는 ‘소리(sound)와 철자(letter)와의 관계에 대한 규칙’으로 의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리의 차이를 식별할 수 있게 하여 영어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Liebert(1971)는 소리와 철자와의 관계를 지도하는 파닉스 교육은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이며, 철자를 읽지 못하는 학습자를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하였으며,

Paul(2003)도 EFL과 같은 환경에서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상생활 속에서 음성 언어보다 제약이 적은 읽기와 쓰기와 같은 문자 언어 교육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영어는 한국어와 달리 소리와 철자와의 관계가 불규칙적이기 때문에 영어를 모국어로 습득하는 어린이 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학습자와 같이 외국어(EFL: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로 영어를 학습하는 학습자에게도 파닉스 교육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

이전의 음성언어 위주의 초등영어 교육이 파닉스 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문자 언어 교육이 4학년에서 3학년 2학기로 앞당겨 졌고(교

* 본 논문은 제1저자의 석사학위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 한국교원대학교 영어교육과 정현성 교수 (E-mail: hchung@knue.ac.kr)

<http://dx.doi.org/10.15812/ter.58.4.201912.471>

육과학기술부, 2008),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3학년 1학기부터 읽기와 쓰기가 시작되어(교육과학기술부, 2011) 문자 언어 교육의 시기와 비중이 조정 되었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부터 파닉스를 도입한 후 그 중요성이 커지게 됨에 따라,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년군을 도입하여 3~4학년군의 읽기와 5~6학년 쓰기에 파닉스 관련 성취기준을 제시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영어 교육의 성취기준은 2009와 세부적인 차이만 있을 뿐 대체적으로 유사하다.

2015 개정 교육과정 3~4학년군 영어 읽기 성취기준은 ‘소리와 철자의 관계를 이해하여 낱말을 읽을 수 있다.’로 제시하였는데, 이는 학습자에게 이해 능력과 표현 능력을 요구하는 것으로, 학습자가 낱말을 구성하고 있는 철자(letter)가 낱말 안에서 어떤 음가(sound)를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여 낱말을 소리 내어 읽을 수 있는 표현 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이는 각 철자와 소리의 관계를 이해하고, 같은 철자라도 낱말에 따라 소리가 달라진다는 파닉스의 이해가 전제된 내용이다. 파닉스 지도는 자음을 모음보다 먼저 제시하고 자음 중 초성을 먼저 제시할 것을 권장하였으며, 교수학습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교육부, 2015). 또한 5~6학년군 쓰기 성취기준에도 ‘소리와 철자의 관계를 바탕으로 쉽고 간단한 낱말이나 어구를 듣고 쓸 수 있다.’와 같이 제시하였는데, 알파벳 쓰기 단계에서 벗어나 단어를 듣고 쓰는 단계로 학습자들이 낱말이나 어구의 철자를 기계적으로 외우지 않고 소리와 철자의 관계를 바탕으로 유추해서 쓸 수 있는 단계를 의미한다(교육부, 2015).

2007 개정교육과정에서 파닉스를 도입한 후 그 중요성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초등영어 교과서에 파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으며, 파닉스 관련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2007 교육과정에서 파닉스 도입과 더불어 실시된 파닉스 연구(고여림, 2012; 양미숙, 2012; 윤여범, 2013)와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파닉스 연구(김영숙, 2016; 김은진, 2015; 서진아, 윤여범, 2017; 윤경진, 이재근, 2017), 그리고 2015 개정교육과정에 관한 파닉스 연구(양효정, 2018; 윤여범, 2019)외에는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며, 국내 학위 논문 및 학술지에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적다. 따라서 3학년부터 본격적으로 파닉스를 학습하는 학습자들의 영어 성취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활발한 연구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파닉스 교육에 관해 보완해야 할 점으로 지적된 내용을 바탕으

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3~4학년군 김인정 초등영어 5종 교과서의 파닉스 지도 내용과 활동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선행 연구

1. 2015 개정 교육 과정의 특징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은 이전 교육과정과 다르게 학생들에게 중점적으로 길러주고자 하는 핵심역량을 제시하였는데, 영어과에 해당하는 핵심역량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상생활 및 다양한 상황에서 영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영어 의사소통 역량과 둘째, 영어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바탕으로 학습자가 자기 주도적으로 영어 학습을 지속할 수 있는 자기 관리 역량이 있다. 셋째, 지역·국가·세계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가치와 태도를 공유하여 공동체 삶에 관심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공동체 역량과 넷째,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영어로 표현된 정보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지식 정보 처리 역량이 해당된다(교육부, 2015).

2015 개정 교육과정은 2009 개정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4기능(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을 3학년 1학기부터 도입하여 네 가지 기능을 고루 발전시키도록 하였으며, 학년 군(3~4학년, 5~6학년)과 검정 교과서 체제 또한 그대로 유지하였다. 특히 학습자의 언어 발달 단계와 수준을 고려하여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기초적인 영어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길러 의사소통능력을 함양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교수학습평가 방법을 개선하여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기능을 고루 향상시킬 것을 강조하였다(교육부, 2017).

학습자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핵심 개념과 원리를 중심으로 학습 내용을 정선하여 감축하였고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을 개선하였으며, 성취 기준도 영어 4기능과 관련된 핵심 개념과 지식, 내용 요소와 기능을 구조화하여 내용체계와 성취 기준을 적정화했다. 따라서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3~4학년군의 읽기 성취기준 ‘①-1. 알파벳 인쇄체 대소문자를 식별하여 읽는다.’, ‘②-1. 소리와 철자의 관계를 이해한다.’, ‘②-2. 소리와 철자의 관계를 바탕으로 쉬운 낱말을 읽는다.’와 5~6학년군의 쓰기 성취기준 ‘②-1. 소리와 철자의 관계를 바탕으로 쉬운 낱말을 듣고 쓴다.’와 같이

세분화하여 제시된 성취기준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3-4학년군 읽기 성취기준 ‘소리와 철자의 관계를 이해하여 낱말을 읽을 수 있다.’와 5-6학년군 쓰기 성취기준 ‘소리와 철자의 관계를 바탕으로 쉽고 간단한 낱말이나 어구를 듣고 쓸 수 있다.’로 정선하여 제시하였으며, 각 성취기준에 대한 해설을 첨부하였다. 해설에 따르면 파닉스 규칙의 제시 순서는 자음을 모음보다 먼저 제시하며, 자음 중 초성을 종성보다 먼저 제시하고, 비슷한 철자 구조를 가진 낱말을 함께 제시하여 파닉스 규칙을 분명하게 파악 할 것을 권장하였다.

2. 교과서 파닉스 분석

학습자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성취기준을 적정화하여 제시된 2015 개정 교육과정 3-4학년군 읽기 성취기준 ‘소리와 철자의 관계를 이해하여 낱말을 읽을 수 있다.’에 따라 개발된 3-4학년군 검인정 5종 영어 교과서에 대한 파닉스 분석 선행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양효정(2018)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3-4학년군 검인정 5종 교과서에 제시된 파닉스를 분석하였다. 첫째, 파닉스 단원 수에 있어서 교과서마다 15~24개로 큰 차이를 보였는데, 3학년 교과서별 알파벳 제시 단원 수가 1~7개로 다르게 구성되어 파닉스 단원 수에도 영향을 주었다. 둘째, 파닉스 활동명과 학습 활동에 있어서 교과서별로 큰 차이가 없었으며, 대부분의 교과서가 Sounds라는 활동 명을 사용하였고, 학습 활동에 있어서도 소리와 철자와의 관계(Listen and repeat, Listen and read aloud)를 인식 한 후 Chant를 하는 학습 활동이 대부분이었다. 1종의 교과서만이 별도의 파닉스 코너를 구성하여 배운 내용을 복습하고 놀이, 쓰기, 문장 읽기 등의 심화 활동으로 구성하여 다양하게 제시하였다. 셋째, 교과서별로 제시된 파닉스 유형 및 양적인 차이가 컸다. 3학년 교과서 모두 자음을 다룬 점이 비슷했지만, 4학년 교과서는 단모음, 장모음, 모음 이중음자, 자음 이중음자의 제시 종류도 교과서마다 다르게 나타났다. 교과서별 파닉스 유형을 단원별로 1개씩 다른 교과서가 있는 반면에 최대 2.8개를 다른 교과서도 있어, 전체 파닉스 유형 수가 19~31개로 차이가 컸다. 넷째, 교과서별 파닉스 비중과 난이도에 있어 차이가 있었는데, 파닉스 단원 구성이 많은 B와 C교과서는 파닉스 유형의 종류도 다양하고 예시 단어도 가장

많아서 다른 교과서에 비해 파닉스 비중이 높고 난이도도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파닉스 지도 순서에 있어서 교과서마다 차이가 있었는데, 3학년에서는 공통적으로 단자음을 제시한 후 단모음을 제시하였고, 4학년에서는 자음군과 자음이중음자, 장모음과 모음이중음자의 경우 일부 교과서만 제시하였다.

따라서 교과서에 제시된 파닉스 분량은 학생들의 읽기 능력을 향상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으므로 파닉스 유형이 교과서 상에 좀 더 다양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파닉스 교육을 3-4학년에 국한하지 말고 5-6학년으로 연장하여 다루는 것이 학생들의 읽기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며, 파닉스 지도를 위한 다양한 자료 소개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윤여범(2019)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첫째, 파닉스의 양적 비교 면에서 3-4학년 검인정 5종 교과서 모두 알파벳을 지도한 후 파닉스를 제시하기 때문에 교과서마다 알파벳을 다루는 단원 수에 따라 파닉스를 다루는 단원의 수가 16~21개로 큰 차이를 보였다. 둘째, 각 교과서에 나타난 파닉스 규칙의 종류는 단원별로 제시된 파닉스 규칙의 수가 4종의 교과서에서는 한 단원에 2개 이상의 규칙을 제시 하였고, 나머지 1종의 교과서에서는 한 단원에 하나의 규칙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5종 교과서에 제시된 파닉스 규칙의 수는 17~30개로 차이가 컸으며, 파닉스 규칙의 예시 단어 또한 38~72개로 각 교과서마다 파닉스에 대한 비중과 난이도에 있어 큰 차이를 보였다. 셋째, 파닉스 규칙의 제시 순서에 있어서, 5종 교과서 모두 자음을 모음보다 먼저 제시한 것을 제외하고는 차이가 컸다. A교과서는 파닉스 규칙의 난이도에 따라 파닉스를 제시하는 일반적인 순서를 따르고 있는 반면에, B~E 교과서는 단원의 소재를 바탕으로 파닉스 규칙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차기 교육과정에서는 교과서마다 알파벳을 다루는 단원 수의 차가 너무 크게 나타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3-4학년의 초기 학습자에게 단원별로 한 개의 파닉스 규칙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은 파닉스 규칙은 5-6학년군에서 제시할 수 있도록, 파닉스 관련 읽기 성취기준을 3-4학년군으로 제한하지 말고 5-6학년군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단원의 소재에 따라 파닉스 규칙을 제시하기 보다는 파닉스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체계적인 순서로 제시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Ⅲ. 연구 방법

1. 교재 분석 대상 및 내용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3~4학년 검인정 5종 총 10권의 초등 영어 교과서 및 지도서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출판사 및 저자는 다음 <표 1>과 같으며, 제시된 각 교과서 목록의 순서는 출판사 이름 순서이며,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 교과서를 A, B, C, D, E로 표기한다.

교재 분석 내용은 2015 개정 교육과정 초등영어 3~4학년군 5종 교과서에 제시된 파닉스 차시를 대상으로 단원 및 차시 구성, 파닉스 학습 활동과 지도 방법, 파닉스 유형 및 예시 단어, 지도 순서로 나눠 분석한다.

2. 파닉스 분석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영어 검인정 5종 교과서 A, B, C, D, E 및 지도서에 제시된 파닉스를 분석하기 위해 체제적 특성과 내용적 특성으로 나눠 알아본다.

체제적 특성에 대한 분석은 첫째, 파닉스 제시 단원 및 차시로 교육과정상 영어를 처음 접하는 3학년 영어 교과서는 알파벳을 제시한 후 파닉스를 제시하기 때문에 교과서마다 제시하는 파닉스 단원 및 차시에 있어 차이를 보일 것으로 생각되므로, 교과서마다 제시하는 파닉스 단원 및 차시의 차이를 살펴본다. 둘째, 파닉스 교수학습 활동과 지도방법 비교는 각 교과서 및 지도서 별로 단원 내에 제시된 파닉스 활동과 구체적인 지도 방법의 특징을 살펴본다.

내용적 특성에 대한 분석은 첫째, 각 단원마다 다루는 파닉스의 유형(type) 및 제시 단어(token) 수를 비교한다. 둘째, 파닉스 지도 순서를 비교한다. 파닉스 유형

을 단자음, 자음군, 자음 이중음자, 단모음, 장모음, 모음 이중음자 6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단원별 파닉스 유형 및 단어 수는 파닉스 난이도를 비교하는 척도이므로, 각 교과서별로 제시된 파닉스 유형 및 단어, 그리고 어떤 순서로 지도하는지 비교한다.

지도서에 제시된 자료 및 내용 분석을 통해 3~4학년 학습자의 특성에 맞게 제시되었는지 살펴보고, 안내된 교수학습 활동 중 어떤 활동(예: Listen and Repeat, Listen and Do, Chant, Listen and Write, Listen and Play, Worksheet, Storytelling, Multimedia, Phonogram 등)이 활용되고 있는지 분석을 통해 파닉스 지도가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알아본다.

Ⅳ. 연구 결과

1. 교과서별 파닉스 체제적 특성

가. 파닉스 단원 및 차시 구성

교육과정상 영어를 처음 접하는 3학년 교과서는 알파벳을 교육한 후 파닉스를 지도하기 때문에 5종 교과서 모두 알파벳을 제시한 후 파닉스를 제시하고 있다. <표 2>는 3~4학년 5종 교과서의 단원 체제, 알파벳과 파닉스 제시 단원 수, 파닉스 차시를 나타낸 것이다.

3, 4학년 각 교과서의 단원체제 수는 11~13개로 그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단원별 시수도 모두 4차시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3~4학년 파닉스 제시 단원 수는 최소 16개에서 최대 21개로 큰 차이를 보였는데, 그 이유로 C교과서는 1단원에서 알파벳 전체를 지도한 후 2단원부터 파닉스를 지도하는 반면, D교과서는 알파벳을 1~7단원에 걸쳐 지도한 후 8단원부터 파닉스를 지도하기 때문에 교과서별 3학년 파닉스 제시 단원 수에

<표 1> 2015 개정 교육과정 3~4학년 5종 교과서

교과서	출판사	저자
A	대교	이재근 등(2018a, b)
B	동아	박기화 등(2018a, b)
C	천재	함순애 등(2018a, b)
D	YBM	김혜리 등(2018a, b)
E	YBM	최희경 등(2018a, b)

〈표 2〉 3~4학년 5종 교과서 파닉스 제시 단위 및 차시 구성

교과서	학년	단원 체제	알파벳 제시 단위	파닉스 제시 단위 (단원 수)	계	파닉스 차시
A	3	11	1~6	7~11(5)	16	3/4
	4		.	1~11(11)		
B	3	12	1~3	4~12(9)	21	3/4
	4		.	1~12(12)		
C	3	11	1	2~11(10)	21	3/4
	4		.	1~11(11)		
D	3	13	1~7	8~13(6)	19	3/4
	4		.	1~13(13)		
E	3	12	1~6	1~6(6) 1~12(별도코너6회)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단원 3/4 • 별도코너(두 단원마다)
	4		.	1~12(별도코너6회)		

크게 영향을 주었다. 파닉스 단위와 차시 구성에 있어서 3학년 E 교과서를 제외한 모든 교과서(A~D)가 알파벳과 파닉스 단원을 따로 구성하여 읽기와 쓰기 단계인 3차시에 파닉스를 제시 하였다. E 교과서는 1~6단원의 각 3차시에 알파벳과 이에 대응하는 파닉스를 함께 제시하였으며, 7~12단원에서는 두 단원이 끝날 때

마다 별도의 파닉스 코너를 두어 배운 내용을 복습하고 심화할 수 있는 활동을 제시하여 다른 교과서들과 차이를 보였다. 4학년 영어 A~D 교과서는 전 단원에 걸쳐 파닉스를 다루었고, E교과서는 단원별로 파닉스를 제시하지 않고 두 단원이 끝날 때 마다 별도의 파닉스 코너를 제시하였다.

〈표 3〉 파닉스 활동 및 지도 방법

	교과서 A	교과서 B	교과서 C	교과서 D	교과서 E
3학년	Sounds and Letter ① Listen and Read - 낱말을 듣고 따라 읽기 ② Phonics Chant - 챗트 하면서 소리 익히기	Sounds ① Listen and Do - 듣고 활동하기 ② Chant 챗트 하면서 소리 익히기	ABC in Words ① Listen and Read - 낱말 듣고 따라 읽기 ② Listen and Do 듣고 활동하기	Sounds ① Listen and Read Aloud - 낱말을 듣고 큰 소리로 읽기 ② Chant and Practice - 챗트 하면서 소리 익히기	Sounds Fun - 챗트 하면서 소리 익히기 - 낱말을 듣고 첫소리 글자 알기 Phonics 코너 ① Chant - 챗트 하면서 소리 익히기 ② Listen and Do - 낱말을 듣고 첫 소리 글자 알기 ③ Play Together - 파닉스 게임하기
	4학년	Sounds and Letters ① Listen and Read - 낱말을 듣고 따라 읽기 ② Phonics Chant - 챗트 하면서 소리 익히기	Sounds ① Chant - 챗트 하면서 소리 익히기 ② Listen and do 듣고 활동하기	Sounds ① Listen and Repeat - 듣고 따라 읽기 ② Listen and Do 듣고 활동하기	Sounds ① Listen and Read Aloud - 낱말을 듣고 큰 소리로 읽기 ② Chant and Practice - 챗트 하면서 소리 익히기

나. 파닉스 학습 활동과 지도 방법

3학년 5종 교과서 모두 알파벳과 파닉스 코너를 구성하였고, 4학년에서는 파닉스 코너만 구성하여 제시하였다. 파닉스 학습 활동과 지도 방법은 <표 3>과 같다.

2. 교과서 별 파닉스 내용적 특성

가. 파닉스 유형 및 예시 단어의 수

3~4학년 교과서마다 제시하는 파닉스의 단원수가 최소 16개에서 최대 21개로 차이를 보일 뿐만 아니라, 제시하는 파닉스 유형과 예시 단어 수도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교과서마다 다르게 나타났다.

3~4학년 5종 교과서에 제시된 파닉스 유형은 최소 19개에서 최대 31개로 차이를 보였으며, 이를 설명하기 위한 예시 단어 수도 최소 38개에서 최대 72개로 큰 차이를 보였다. 교과서마다 한 차이에 제시하는 유형별 예시 단어 수도 교과서 D만 항상 2개를 제시하였으며, 다른 교과서는 최소 1개에서 최대 6개의 예시 단어를 제시하였다.

A교과서는 3학년 5개 단원에 걸쳐 파닉스 유형과 예시 단어를 각 단원별 2개씩 제시하였고, 4학년에서는 11개 단원에 걸쳐 자음을 다룬 단원에서는 유형과 예시 단어를 각각 2개씩, 모음을 다룬 단원에서는 각 단원별로 1개 유형에 4개의 예시 단어를 제시하였다. B교과서는 3학년 9개 단원에 걸쳐 파닉스 유형과 예시 단어

를 각각 2개씩 제시하였고, 4학년 12개 단원에 걸쳐 단원별로 1개의 유형에 3개의 예시 단어를 제시하였다. C교과서는 3학년 10개의 단원에서 파닉스를 제시 하였는데, 단원별로 자음은 파닉스 유형과 예시 단어를 각각 2개씩 제시 하였으며, 모음은 1개의 파닉스 유형에 3개의 예시 단어를 제시하였다. 4학년은 11개 단원에서 각 단원별 파닉스 유형 1개와 예시 단어 3개씩을 제시 하였다. D교과서는 3학년 6개 단원과 4학년 13개 단원 모두 각각 1개의 파닉스 유형과 2개의 예시 단어를 제시 하였다. E교과서는 3학년 6개 단원에 걸쳐 26개의 알파벳에 대응하는 파닉스 유형을 제시하였는데, 알파벳 순서대로 한 단원에 4~5개의 파닉스 유형과 이에 해당하는 예시 단어를 1개씩 제시 하였다. 별도의 파닉스 단원은 배운 내용을 복습하고 놀이 활동을 통해 심화 학습 하도록 구성하였다. 4학년에서도 3학년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파닉스 코너를 두어 모음 유형만을 다루었는데, 한 코너에 하나의 단모음 파닉스 유형을 제시 하였으며, 각각의 코너 마다 6개의 예시 단어를 제시하였다.

나. 교과서에 제시된 파닉스 유형

각 교과서에 제시된 파닉스 유형의 종류는 교과서의 난이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5종 교과서에 제시된 파닉스 유형을 자음과 모음으로 나눠 알파벳 순서로 <표 5, 6>과 같이 비교하였다.

<표 5>에서 교과서 A, D, E는 단자음 유형만을 다

<표 4> 3~4학년 교과서에 제시된 파닉스 유형과 예시 단어 수

교과서	학년	파닉스 제시 단원 수		파닉스 유형의 수		유형의 예시 단어 수		유형별 예시 단어 수
		학년별	전체	학년별	전체	학년별	전체	
A	3	5	16	10	27	20	64	2
	4	11		17		44		2~4
B	3	9	21	18	30	36	72	2
	4	12		12		36		3
C	3	10	21	17	28	37	70	2~3
	4	11		11		33		3
D	3	6	19	6	19	12	38	2
	4	13		13		26		2
E	3	12	18	26	31	26	56	1
	4	6		5		30		6

〈표 5〉 3~4학년 교과서에 제시된 자음의 파닉스 유형

유형	교과서 A		교과서 B	교과서 C	교과서 D	교과서 E
	초성	종성				
b	○		○	○	○	○
c /k/			○	○		○
d	○	○	○	○	○	○
f	○		○	○	○	○
g /g/	○	○	○	○	○	○
h			○		○	○
j /dʒ/			○			○
k	○	○				○
l	○		○	○	○	○
m	○	○	○	○	○	○
n	○	○	○	○	○	○
p	○	○	○	○	○	○
q /kw/						○
r	○		○	○	○	○
s	○		○	○	○	○
t	○	○	○	○	○	○
v	○		○	○	○	○
w			○			○
x /ks/		○				◎
y			○			○
z	○		○	○		○
자음군	sk		○			
	br		○			
자음 이중음자	ch /tʃ/		○	○		
	sh /ʃ/		○	○		
	th /θ /		○	○		
	th /ð/			○		
	ng /ŋ/			○		
계	14	(8)	23	19	13	21

※ 교과서 B-E는 자음을 초성만 제시하였는데, 교과서 A는 자음을 초성과 종성으로 분리하여 제시하였다. 단, 교과서 E의 유형 X(◎)는 예외로 종성을 제시함.

루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B교과서는 단자음과 자음군 2개, 그리고 자음 이중음자 3개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C교과서도 단자음과 자음 이중음자 5개를 제시하고 있다. 4학년 교과서는 3학년과 달리 교과서마다 파닉스 제시 유형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A교과서는 자음 유형

을 초성과 종성으로 나눠 제시 하였으며, 단모음을 다루었다. 그러나 자음군, 자음 이중음자, 장모음, 모음 이중음자는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B교과서는 단자음, 자음군, 자음 이중음자, 단모음, 장모음을 다루어 난이도가 높은 편에 속하였다. C교과서는 단자음, 자음 이

〈표 6〉 3~4학년 교과서에 제시된 모음의 파닉스 유형

	유형	교과서 A	교과서 B	교과서 C	교과서 D	교과서 E
단모음	a /æ/	○	○	○	◎	○
	e /ɛ/	○	○	○	◎	○
	i /i/	○	○	○	◎	○
	o /ɑ/	○	○	○	◎	○
	u /ʌ/	○	○	○	◎	○
장모음	a /eɪ/		○	○	◎	
	e /i/					
	i /aɪ/		○	○		
	o /oʊ/			○		
	u /ju/					
모음 이중음자	oo /u/			○		
	계	5	7	9	6	5

※ 교과서 D(◎)는 단모음과 장모음 유형을 모음과 자음의 결합 유형 “-at /æt/, -ed /ɛd/, -ig /ɪg/, -ong /ɔŋ/, -up /ʌp/”과 “ay /eɪ/”로 제시하였다.

중음자, 단모음, 장모음, 모음 이중음자를 다루었는데, 자음군과 자음 이중음자는 단자음 보다 학습하기 어려우며, 장모음과 모음 이중음자는 단모음보다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5종 교과서 중 C교과서는 난이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D교과서는 단자음만을 다루었는데, 파닉스 유형 X는 두 개의 음소인 /ks/ 또는 /gz/ 발음되는데, 교과서에는 /ks/로 발음되는 종성 자음 X를 제시하였다. 특히 다른 교과서와 다르게 단모음과 모음과 자음의 결합 유형으로 제시하였으며, 교과서 중에서 가장 적은 파닉스 유형과 파닉스 예시 단어를 제시하여 난이도가 가장 낮았다. E교과서는 단자음과 단모음 이외의 다른 유형은 다루지 않았다.

교과서 B와 C는 파닉스 단원을 각각 21개로 구성하였으며, 다양한 파닉스 유형(자음군, 자음 이중음자, 장모음, 모음 이중음자)과 많은 예시 단어(B교과서 72개, C교과서 70개)를 제시 하여 다른 교과서에 비해 파닉스 난이도가 높게 나타났다.

다. 파닉스 지도 순서

파닉스 지도 순서는 자음이 모음에 비해 소리와 철자의 일대일 대응관계가 규칙적이고 발음을 익히기 쉽기 때문에 자음을 먼저 지도해야 한다는 주장과 단모음이 영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모음을 먼저

지도해야 한다는 등 학자마다 주장이 다르다. 그러나 이들의 공통점은 난이도에 따라 파닉스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3~4학년군 5종 영어 교과서 대부분은 난이도에 따라 파닉스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단원의 소재에 따라 문자 언어와 연계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이미 의미를 알고 있거나 친숙한 단어를 사용할 때 효과적(Pinter, 2006)이라고 생각하는 견해를 따르기 때문이다. 각 교과서별로 제시된 파닉스 규칙에 따른 지도 순서는 <표 7>과 같다.

A교과서 3학년 2학기에 제시된 초성은 음성학적 유사성이 있는 두 개의 자음으로 음성학적 순서를 따르고 있으며, 4학년 1학기에 제시된 초성과 종성은 일반적인 자음 규칙의 제시 순서이다. 단모음은 알파벳 순서대로 제시하고 있다.

B교과서의 자음 초성 대부분은 음성학적 유사성을 근거로 제시되었으나, 난이도가 높은 <c-g>를 난이도가 매우 낮은 <m-n>보다 먼저 제시된 것으로 보아 파닉스 규칙의 난이도 순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모음의 경우도 단모음과 장모음의 순서로 제시하지 않고 있어, 자음과 마찬가지로 단원의 소재에 따라 제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C교과서는 음성학적 유사성이 있는 두 개의 자음은 3학년 1~2학기에 단원별로 제시하고 있으며, 자음 이중

〈표 7〉 5종 교과서의 파닉스 지도 순서

교과서	학기	파닉스 규칙	
A	3학년 2학기	초성 <m, n>, <p, b>, <d, t>, <k, g>, <l, r>	
	4학년 1학기	초성 <f, v>, <s, z>, 종성 <-d, -t>, <-g, -k>, <-m, -n>, <-p, -x>	
	4학년 2학기	단모음 <a>, <e>, <i>, <o>, <u>	
B	3학년 1학기	초성 <s, z>, <p, b>, <t, d>	
	3학년 2학기	초성 <r, l>, <c, g>, <h, j>, <m, n>, <f, v>, <w, y>	
	4학년 1학기	단모음 <i>, <a>, <e>, <u>, 장모음 <a> 단모음 <o>	
		4학년 2학기	장모음 <i> 자음군 <sk> 자음이중음자 <sh> 자음군 자음이중음자(무성음) <th>(θ /), <ch>
			3학년 1학기
	C	3학년 2학기	초성 <f, v>, <s, z> 단모음 <a>, <i>, <o> 자음이중음자(유성음/ð/) <-th->
4학년 1학기		단모음 <e> 자음이중음자(무성음) <th->, <sh>, <ch-> 모음이중음자 <oo>	
		4학년 2학기	단모음 <u> 장모음 <i> 자음이중음자 <-ng> 장모음 <a>, <o>
3학년 2학기			초성 , <d>, <p>, <s>, <t>, <r>
D		4학년 1학기	초성 <n>, <h>, <m>, <v>, <g>, <l>, <f>
	4학년 2학기	단모음(모음과 자음의 결합 유형) <-at>, <-ed>, <-ig>, <-ong>, <-up>, <-ay>	
E	3학년 1학기	초성 <알파벳 26개와 일대일 대응>	
	3학년 2학기	초성 <s, z>, <b, p>, <d, t>, <c, g> <l, r>, <f, v>	
	4학년 1학기	단모음 <a>, <e>, <i>	
	4학년 2학기	단모음 <o>, <u>	

※ 한 차시에 지도 되는 파닉스 규칙을 〈 〉안에 넣어 표시 하였다. 예로, A교과서 3학년 2학기에 제시된 자음 초성 <m, n>은 한 차시에 2개의 파닉스 규칙 지도를 의미함.

음자 <th>를 무성음(θ /)과 유성음(ð/)으로 나눠 제시 하였다. B교과서와 마찬가지로 <c-g>를 <m-n>보다 먼저 제시하였고, 단모음을 분산하여 제시한 것으로 보아 단원의 소재를 바탕으로 파닉스 규칙을 제시하는 방법을 따르고 있다.

D교과서의 자음 초성은 난이도의 순서 또는 음성학적 유사성에 근거하여 제시한 것이 아니라 단원의 소재를 바탕으로 제시하였으며, 4학년 2학기에 제시된 단모

음의 모음과 자음 결합 유형은 철자 순서에 따라 제시 되었다.

E교과서는 Matsuka(2000)의 순서(① 알파벳 제시, ② 6개 자음, ③ 단모음, ④ 그 밖의 자음 등)와 비슷하게 제시되었는데, 다른 교과서와 다르게 3학년 1학기에 알파벳 26개와 일대일 대응하는 파닉스 규칙을 제시 하였으며, 3학년 2학기에는 음성학적으로 유사성이 있는 두 자음을 단원별로 2개씩 제시 하였다. 4학년 1학

기와 2학기에 제시된 단모음은 D교과서와 마찬가지로 알파벳 순서를 따르고 있다.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에서는 2018년부터 3, 4학년에 적용하여 시행되고 있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3~4학년군 초등 영어 교과서 분석을 통해 실제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에서 파닉스 교육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조사해 보았다.

교과서 체제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첫째, 교육과정상 영어를 처음 접하는 3학년 교과서는 알파벳을 교육한 후 파닉스를 지도하기 때문에 교과서별 파닉스 제시 단원 수가 16~21개로 큰 차이를 보였다. 둘째, 단원 구성에 있어서 E교과서는 다른 교과서(A~D)와 달리 알파벳과 파닉스 단원을 따로 구성하지 않고, 1~6단원의 각 3차시에 알파벳과 이에 대응하는 파닉스를 함께 제시하였으며, 두 단원이 끝날 때마다 별도의 파닉스 코너를 두어 심화·복습할 수 있는 활동을 제시하였다. 셋째, 차시 구성에 있어서 5종 교과서 모두 읽기와 쓰기 단계인 3차시에 파닉스를 제시하였으며, 학습활동과 지도방법에 있어서도 ‘Listen and Read’, ‘Listen and Do’, ‘Chant’ 등의 활동으로 제시하였다. E교과서를 제외한 A~D교과서의 파닉스 학습은 읽기 및 쓰기 활동과 함께 제시되기 때문에, 한 차시에 차지하는 파닉스 비중이 크지 않으며 지도시간도 부족하여, 학습자의 흥미와 수준을 고려한 활동이기 보다는 직접적이고 단순한 활동으로 효과적인 파닉스 학습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교과서별 파닉스 제시 단원 수의 차가 너무 크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각 교과서별 단원 구성 및 차시 구성의 차이를 줄이고 파닉스 비중을 늘려 충분한 파닉스 지도 시간의 확보가 요구된다. 그리고 학습자의 흥미와 수준에 적합한 다양한 활동과 효과적인 파닉스 지도방법이 체계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교과서 내용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첫째, 3~4학년 5종 교과서에 제시된 파닉스 유형은 19~30개로 큰 차이를 보였다. 3학년 5종 교과서 모두 단자음 유형을 다루는 공통점이 있었으나, 4학년 교과서는 3학년과 달리 교과서마다 파닉스 제시 유형이 다르게 나타났다. 4학

년 A교과서는 자음을 초성과 종성으로 나눠 제시한 후 단모음을 다루었으며, B교과서는 단모음, 장모음, 자음군, 자음이중음자의 순으로 제시하였다. C교과서는 자음이중음자와 단모음, 장모음, 모음이중음자를 파닉스 규칙의 난이도 순서와 상관없이 제시 하였다. D교과서는 단자음, 단모음을 모음과 자음의 결합유형으로 제시하였고, E교과서는 단모음만을 제시하였다. 둘째, 교과서별 전체 예시 단어 수도 38~72개로 차이가 컸는데, 각 유형별 제시된 예시 단어 수는 교과서별, 자음과 모음에 따라 1~6개로 다르게 나타났다. 교과서 B와 C는 다양한 파닉스 유형과 많은 예시 단어를 제시하여 난이도가 높은 교과서에 속하였다. 셋째, 파닉스 지도 순서에 있어서도 ‘파닉스 규칙의 난이도에 따라 제시’하기를 권장하는 학자들의 견해와는 달리 대부분의 교과서가 ‘단원별 소재에 따라 문자 언어와 연계하여 제시’하는 방법을 따르고 있었다. 이처럼 교과서별 파닉스 유형 및 예시 단어 수와 지도 순서의 차이는 파닉스 난이도 및 학습자의 학습 부담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학습자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 파닉스 핵심 개념과 원리를 학습할 수 있도록 내용적 특성의 차이를 줄여야 한다. 그리고 파닉스 유형의 제시도 학습자의 수준과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학습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단어나 문장을 활용하여 의미 있는 상황 속에서 파닉스 난이도에 따른 적절한 지도 순서로 지도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교과서의 주제를 따라 가기 보다는 별도의 파닉스 단원을 마련하여 학습자들이 파닉스의 핵심 개념과 기본 원리를 익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제언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3~4학년군 초등 영어 교과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이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3~4학년 파닉스 교육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파닉스는 소리와 철자와의 관계를 인지 할 수 있도록 하여, 교과서에 제시된 기본 어휘를 읽고 쓰는 능력과 발음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읽기와 쓰기 단계인 3차시에 파닉스 활동이 제시되어 지도시간 부족으로 파닉스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교육과정상 영어를 처음 접하는 3학년 학습 초기에 집중적으로 파닉스를

지도할 수 있도록 교재를 개발하고 제공하며, 다양한 파닉스 교수학습 활동을 할 수 있는 파닉스 수업 시수의 증가가 필요하다.

둘째, 난이도가 높은 파닉스 유형은 3~4학년군 교육 과정에 제한하지 말고, 5~6학년군까지 확장하여 제시함으로써, 교과서별 지도 내용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학습자의 학습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3~4학년군에서 단자음과 단모음만을 제시한 A, E교과서는 5~6학년군까지 파닉스를 확장하여 제시하였다. 특히, A교과서는 6차시 중 3차시의 ‘Sounds and Letters’ 활동 단계에서 자음군, 자음이중음자, 장모음을 제시하였으며, E교과서는 6차시 중 2차시의 ‘Sounds Fun’ 단계에서 자음군, 자음 이중음자, 장모음, 모음이중음자를 제시하였다. B, C교과서도 3~4학년군에 제시된 난이도가 높은 파닉스 유형을 5~6학년군까지 확장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에 파닉스 관련 5~6학년군 읽기 성취기준을 제시하고, 읽기와 쓰기 지도에 대한 연구와 지도 방법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현재 교과서에 제시된 파닉스 학습 활동이 매우 제한 적이기 때문에, 학습자의 발달 단계와 특징, 지역 여건의 실정을 고려하여 실제 교육현장에서 학습자들의 흥미와 관심을 끌 수 있는 다양한 교수학습 활동 및 지도 방법에 대한 현장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넷째, 파닉스 교육이 영어 학습 부진 학생의 읽기 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는지에 알아보기 위한 실제적인 자료 개발을 위한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다섯째, 단원의 주제에 얽매이기 보다는 별도의 파닉스 단원을 마련하여 학습자들이 파닉스의 핵심 개념과 기본 원리를 익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3~4학년군 초등 영어 5종 교과서에 제시된 파닉스 교육의 특성과 교사 인식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앞으로 교과서 개발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점들에 대해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제한점을 보완한 영어 교과서에 대한 후속 연구는 효과적인 파닉스 지도와 초등 영어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요약

본 연구에서는 2018년부터 3, 4학년에 적용하여 시

행되고 있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3~4학년군 초등 영어 교과서 파닉스 내용을 분석하였다. 총 10권의 교과서를 대상으로 교과서의 체제적 특성과 내용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체제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교과서별 파닉스 제시 단원 수의 차가 너무 크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각 교과서별 단원 구성 및 차시 구성의 차이를 줄이고 파닉스 비중을 늘려 충분한 파닉스 지도 시간의 확보가 요구된다. 그리고 학습자의 흥미와 수준에 적합한 다양한 활동과 효과적인 파닉스 지도 방법이 체계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내용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제시된 파닉스 요소가 교과서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 파닉스 지도 순서에 있어서도 파닉스 규칙의 난이도에 따라 제시되기 보다는 단원 별 소재에 따라 제시되고 있다. 학습자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 파닉스 핵심 개념과 원리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과서 간의 내용적 특성의 차이를 줄이고 체계적인 파닉스 지도 순서에 따라 별도의 단원을 통해 활동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파닉스, 발음 교육, 2015 개정 교육과정, 초등학교

참고문헌

- 고여림 (2012). 2008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4학년 영어 교과서 파닉스(Phonics) 지도 내용 분석. **영어교육, 11(2)**, 81-103.
- 교육과학기술부 (2008). **영어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8-160호,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 (2011). **영어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부 (2015). **영어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14]. 서울: 교육부.
- 교육부 (2017).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개발을 위한 편수자료 1**. 서울: 교육부.
- 김영숙 (2016). 2009 개정 교육과정 기반 초등영어 교과서의 파닉스 지도 내용 및 방법 분석. **초등영어교육, 22(4)**, 237-257.
- 김은진 (2015). **초등영어 교과서의 파닉스 분석과 지도 실태**. 석사학위 논문, 서울교육대학교 대학원, 서울.
- 김혜리, 황창녕, 강영옥, 임희진, 경지숙, 김태영, 정윤희, 정수정, 신재욱, 이지현, Jordan Vinikoor (2018a).

- Elementary school English 3.** 서울: YBM.
- 김혜리, 황창녕, 강영옥, 임희진, 경지숙, 김태영, 정윤희, 정수정, 신재욱, 이지현, Jordan Vinikoor (2018b). **Elementary school English 4.** 서울: YBM.
- 박기화, 안경자, 홍진영, 김혜원, 임은화, 정고은, 이영 (2018a). **Elementary school English 3.** 서울: 동아출판사.
- 박기화, 안경자, 홍진영, 김혜원, 임은화, 정고은, 이영 (2018b). **Elementary school English 4.** 서울: 동아출판사.
- 서진아, 윤여범 (2017).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 영어 교과서의 파닉스 분석. **한국초등교육, 28(2)**, 153-171.
- 양미숙 (2012). **초등학교 4학년 영어 교과서의 파닉스 분석과 파닉스 지도 실태 조사.** 석사학위논문, 광주 교육대학교 대학원, 전남.
- 양효정 (2018).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3~4학년 초등영어 교과서의 파닉스 분석.** 석사학위 논문, 대구교육대학교 대학원, 대구.
- 윤경진, 이재근 (2017). 초등학교 영어교육에서 파닉스 지도에 관한 교사 인식 조사와 개선 방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회, 17(19)**, 515-540.
- 윤여범 (2013). 2007 개정 초등영어 교육과정에 나타난 파닉스 분석. **한국초등교육, 24(1)**, 167-181.
- 윤여범 (2019).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영어 교과서의 파닉스 분석. **영어교과교육, 18(1)**, 99-116.
- 이재근, 김진석, 나경희, 이동주, Judy Yin, 권민지, 김은주, 정은숙, 윤경진, 김동연, 서미옥, 민경선, 최은수, 김소영, 정효준, 장진철, 장안숙, 김주원 (2018a). **Elementary school English 3.** 서울: 대교.
- 이재근, 김진석, 나경희, 이동주, Judy Yin, 권민지, 김은주, 정은숙, 윤경진, 김동연, 서미옥, 민경선, 최은수, 김소영, 정효준, 장진철, 장안숙, 김주원 (2018b). **Elementary school English 4.** 서울: 대교.
- 최희경, 서지연, 문은혜, 이미화, 윤지영, 박미애, 조선형, 이효진, 박경희 (2018a). **Elementary school English 3.** 서울: YBM.
- 최희경, 서지연, 문은혜, 이미화, 윤지영, 박미애, 조선형, 이효진, 박경희 (2018b). **Elementary school English 4.** 서울: YBM.
- 함순애, 이양순, 김현아, 박수경, 박장웅, 안소연, 은정호, 이정민, 임남희, 정신우, Heather L., Reichmuth (2018a). **Elementary school English 3.** 서울: 천재교육.
- 함순애, 이양순, 김현아, 박수경, 박장웅, 안소연, 은정호, 이정민, 임남희, 정신우, Heather L., Reichmuth (2018b). **Elementary school English 4.** 서울: 천재교육.
- Liebert, B. (1971). *Linguistics and the new English teacher.* NY: Macmillan.
- Matsuka, Y. (2000). *Let's study phonics.*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Paul, D. (2003). *Teaching English to children in Asia.* Hong Kong: Longman Asia.
- Pinter, A. (2006). *Teaching young language learner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